**꿈과 사랑: <라라랜드> 속의 필연적 판타지**

구인용

경적만이 난무하는 LA의 한 정체된 고가도로. 갑자기 사람들이 차 밖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말 그대로 난무(亂舞)하면서 영화 <라라랜드>는 시작한다. 이때 등장하는 음악 “Another Day of Sun”의 가사는 고가도로 위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꿈을 품고 LA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롱 테이크 기법을 이용해 춤추며 꿈을 노래하는 사람들과 여주인공 미아를 한 컷에 담아내는 감독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라라랜드>는 꿈을 좇는 과정에 멈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배우를 지망하는 미아와 자신의 재즈 클럽을 차리는 것을 꿈꾸는 세바스찬. 결말에 이르러 둘이 꿈을 이루기까지, 그들의 험난한 과정에서 또 하나 뺄 수 없는 키워드는 바로 ‘사랑’이다. 이들의 꿈과 사랑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은 흥미롭다. 영화 진행을 따라 둘의 꿈과 사랑의 진행을 곡선으로 그려보면 꿈과 사랑이 꼭 같은 곡선을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미아는 세바스찬의 열정에 반해 그와 재즈를 사랑하게 된다. 세바스찬의 열정은 미아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일인극에 오지 않았던 세바스찬은 다시 그녀가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했다. 세바스찬 역시 미아를 사랑하게 되면서 많이 변화한다.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그는 사랑을 키우면서 점차 꿈을 망각하고, 안정적인 현실에 안주하고자 한다.

그리고 영화는 음악을 이용해 꿈과 사랑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City of Stars”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우연히 들어간 한 클럽에서 미아가 들었던 이 곡은 둘의 사랑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곡이다. 캐럴을 연주하라는 사장의 명령에 불복하며 세바스찬은 “City of Stars”라는 곡을 통해 재즈에 대한 갈증을 드러낸다. 이후 방파제에서 세바스찬이 휘파람을 불며 노래했을 때의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애초에 이 곡은 세바스찬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노래였다. 그러나 “City of Stars”는 둘의 사랑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듀엣으로도 등장하며, 결말부에서 둘의 사랑을 추억하며 세바스찬이 연주하는 곡이기도 하다. “City of stars”는 세바스찬의 꿈을 표현하는 노래였다가 둘의 사랑을 다루는 곡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음악과 비현실적인 연출은 이따금 등장하여 관객들을 황홀하게 만든다. 천문대에서 하늘에 올라 왈츠를 추는 장면이나, 미아가 “Audition”이라는 곡을 부르는 동안 그녀에게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장면이 그러하다. 꿈과 사랑이 최고조를 찍는 순간들에 음악과 판타지가 함께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일지도 모른다. 애초에 꿈이나 사랑은 낭만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꿈과 사랑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면 오히려 현실의 틀을 벗어나서 판타지가 개입되어야 한다. 아니, 꿈과 사랑 자체가 판타지 아닌가.

결국, 영화는 둘이 각자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지만 함께 할 수는 없는, 말하자면 꿈의 성공과 사랑의 실패로 끝이 난다. 때문에 ‘<라라랜드>의 결말은 새드 엔딩인가?’ 라는 질문은 관객들이 꿈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역시 이때도 감독은 미아와 세바스찬이 함께하는 전형적인 해피엔딩을 보여주면서, 판타지와 음악을 통해 꿈과 사랑의 주제를 강조한다.) 영화에서 꿈은 사랑을 시작하는 계기이고, 사랑은 꿈을 좇는 동기이다. 때로 사랑과 꿈은 동일시되지만, 결국 영화는 꿈과 사랑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둘은 붙어있지만,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꿈과 사랑. 둘의 아이러니는 비극인가. 그렇다면 나는 살아가는 데에 돈(동전)이 필요하듯, 꿈과 사랑도 삶에 꼭 필요한 비극이라고 말하고 싶다.